

‘동계훈련 메카’ 목포 국제축구센터



국내 최대규모...최신 숙박시설 갖춰

작년에만 175팀 8만1713명 찾아

개장 5년만에 4억여원 첫 흑자

지역 숙박·요식업과 상생, 과제로

목포시가 동계 전지훈련지의 일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4개 총복 224개 팀 10만34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목포를 찾았다. 동계가 5만9613명, 하계가 4만421명에 달했다.

총복별로는 축구가 가장 많았고 육상과 하키, 수영, 카누, 탁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목포시가 동계 전지훈련지로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목포 국제 축구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9년 8월 개장한 목포 국제축구센터가 일궈낸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동계 전지훈련지 인기 비결은=목포 국제축구센터는 부지 21만5000㎡에 축구장 7면(천연 3, 인조 4면)과 하키구장 2면, 하프 돔, 시각장애인 구장, 다목적 구장 등 축구 단일종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 편의시설로 113실에 450명 정도를 수용하는 숙소동을 비롯해 대강당, 대연회장, 다목적실, 트레이닝센터, 사우나, 당구장, 탁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목포 축구센터의 인기 비결로 ▲최신식 시설 ▲국제 규격에 맞는 질 높은 천연·인조 잔디구장 완비 ▲겨울철 최적의 기후여건 등 3가지를 꼽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100팀에 5만3294명,

2011년 103팀에 7만9873명, 2012년 127팀에 8만1479명, 2013년 159팀에 7만4168명에 달하는 전지훈련 유치기록을 세웠고, 지난해에는 175팀에 8만1713명(11월 말 현재)을 유치했다.

개장 이후 전지훈련 유치 현황은 총 688팀에 38만58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지훈련 이외에 각종 대회 등을 포함한 역대 이용객은 총 221만79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체육시설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목포 국제축구센터는 수익원 발굴을 위해 매년 5~9월 비수기를 활용한 교육·연수 사업 확대와 함께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 수익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진행되는 동계 전지훈련 기간 동안 U-19(19세 이하) 여자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국내외 프로 및 실업팀, 학원팀 등 26개 팀이 예약을 마친 상태다.

목포 국제 축구센터 관계자는 “올해 전지훈련 190팀(9만1000명), 각종 대회 170회(19만명), 행사 2200회(37만명)를 유치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예상수익은 2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흑자 돌아선 축구센터 남은 과제는=개장 5년째인 지난해 처음으로 4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타

축구 단일종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목포 국제 축구센터 전경. 축구장 7면과 하키구장 2면, 하프 돔, 시각장애인 구장, 다목적 구장 등을 갖추고 있다. 아래는 최신식 숙박동과 트레이닝 센터.

지자체와 달리 목포시로부터 대회유치 지원금을 한 톨도 받지 않은 약조건 속에서 일궈낸 결과여서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전지훈련팀이 많이 오고는 있지만 국제 축구센터 내에서 식사와 숙박을 해결하는 시스템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역내 요식업과 숙박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이에 대해 박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유소년, 초·중등 대회 등은 학부모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대회유치에 역점을 두어 지역 요식업과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지난해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교규식기자 lyc@

목포시 KTX 개통 대비 30개 과제 추진

순기능 키우고 역기능 최소화

목포시가 호남고속철도(KTX) 완전 개통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목포시는 “호남고속철도건설 1단계(광주 송정~오송) 사업이 오는 3월 개통되면 목포에서 서울 용산까지의 소요시간이 현재 3시간 23분에서 2시간 6분으로 77분이 대폭 단축돼 반나절 생활권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KTX가 완전 개통되면 목포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및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물류가 늘어나 산업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문화·쇼핑·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역류출되는 ‘빨대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순기능은 증대시키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분야(3개) ▲교통분야(6개) ▲문화관광분야(13

개) ▲유통소상공분야(4개) ▲의료위생분야(4개) 등 총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각 분야별 중점추진 과제로는 ▲KTX 역세권 개발, 목포역 주변 공·폐가 정비,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추진(도시분야) ▲전남 서남권 시·군연계 대중교통망 구축, 목포역 일반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중교통 환승체계구축(교통분야) ▲KTX 연계 시티투어 운영, 서남권 시·군 연계 관광네트워크 구축, 원도심 문화예술 공연 운영(문화관광분야) ▲목포역 관광안내소 중소기업 판매장 운영, 시내면세점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유통소상공분야) ▲의료환자 역의유출 대책 수립, 중국관광객 이용 음식점 개발(의료위생분야) 등이다.

박홍률 시장은 “KTX 개통으로 인한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관광객 증가 및 역세권 발전 등 순기능은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작년 생활폐기물시설 폭발 원인은 분진

산업안전공단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발생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폭발사고 원인이 분진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조계통 내부에 잔존하는 가연성 고체의 열분해가스과 분해과정에서 생긴 분진이 혼합된 상태에서 탈취로의 고열이 점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폭발 사고원인이 시공사측 잘못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공사에 가연물과 산화물 제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가연성 가스 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소농도 관리시스템과 설비를

보완해 복구하도록 주문했다. 또 시는 지난 2010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낙찰받은 시공사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준공을 한달 앞둔 지난해 11월 21일 시운전 도중 건조시스템에서 원인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당시 내부에 작업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비 대부분이 파손돼 30억원(업체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편 목포시는 국비 등 사업비 386억 9600만원을 투입해 대양동 위생매립장안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일일 생활폐기물 230t을 처리하고, 고형연료(SRF) 115t을 생산하는 규모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 남향 거점형 마린나 항만 개발

목포 남향이 민자 유치를 통해 거점형 마린나 항만으로 개발된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요트와 보트 등 해양레저 수요의 증가에 맞춰 남향 매립지와 인근 해안에 마린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한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마린나 항만 조성에 필요한 방파제 및 호안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 300억원의 범위에서 국가재정으로 지원되고, 남향 매립지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비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

비 지원된다.

또 민간은 자기자본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총 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는 두 차례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표명한 업체와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물을 발송하고, 현장 설명회(2월 2일 예정)를 실시하는 등 민간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돌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 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아직장 주가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아파트 매매

▶한양아파트(남구 주월동)

- 1층 / 28평
-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가능
- ◆ 매매 1억2500만원
- ◆ 전세 1억500만원
- ◆ 임대 5000만원/30만원

▶현진 애버빌(광산구 수완동)

- 1층 / 53평
- 학군최상 / 투자가치 좋음
- 내부 깨끗
- ◆ 매매 4억9500만원
- ◆ 전세 4억500만원
- ◆ 월세 2억 / 100만원

상가 임대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 1층 / 31평
- 800세대 / 시청입구
- 우측 GS편의점 입점
-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 권리금 없음(미용실, 화장품, 옷가게 적합)
-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땅 매매

▶광산구 우산동 210-32

- 답 900평
- 생산녹지 / 나무식재 가능
- 투자가치 좋음
- ◆ 융자 2억4000만원
- ◆ 매가 4억500만원

010-8676-1900